

8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열왕기하 6:8~23



엘리사의 사환은 아
람의 많은 군사들이
성을 포위한 것을 보
고 매우 두려워하였
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계획을 세웠지만, 매번 그 계획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 의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먼저 잡아들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거하고 있는 것을 알아 낸 아람 왕은 밤중에 말과 ¹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그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²사환은 아람의 많은 군사들이 성을 포위한 것을 보고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사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이까?

엘리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¹병거: 전쟁에 쓰는 수레

²사환: 잔심부름을 맡아하는 사람

성경 암송

하나님께서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18)



그러자 사환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자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아람 군대를 인도하여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채 엘리사를 따라온 이들은 자신들이 사마리아에 오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를 본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엘리사는 이들에게 떡과 물을 먹게 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리사



엘리사와 사환은 수많은 아람 군사들을 보고 각각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한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Blank writing area for the student's response.

Blank writing area for the student's response.

Blank writing area for the student's response.



엘리사



사환



나



엘리사와 사환의 태도가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나'와도 함께하실까요? 나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신 구절을 모두 찾아 ○표 해보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성경구절을 써 보세요.

이사야 41:10, 열왕기상 6:13, 시편 23:4, 이사야 43:1, 마태복음 28:20,
마가복음 16:15, 요한복음 5:39, 시편 34:7, 여호수아 1:9, 잠언 29:1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은 이 외에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나요? 아래 그림을 보고 적어 보세요.

① 기도할 때



② 슬플 때



③ 말씀을 읽을 때



④ 외로울 때



⑤ 기쁠 때



⑥ 욕하며 거짓말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긴 엘리사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를 어떻게 대접했나요?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베드로전서 3:11)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다음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① 혼자 아프고 힘들 때



② 힘센 친구가 나를 미워할 때



③ 미워하는 친구가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끼고 있을 때도, 못 느끼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5)

예화



루터

루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가톨릭 교회에 반대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가톨릭 교회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계속 가톨릭 교회를 반대한다면 종교재판을 열어 너를 사형에 처하겠다!

이 소식을 들은 루터는 몹시 걱정을 하며, 매일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감감한 밤에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밤에 ¹⁾상복을 입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크게 일 어났구나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루터: 누가 죽었소?

아내: 예, 그래요.

루터: 누가 죽었다단 말이요?

아내: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더군요!

루터: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단 말이요? 말이나 되는 소리요?

아내: 만약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한숨을 쉬며 걱정을 하나요?



이 말을 들은 루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반성하며,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¹⁾상복: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예복

부모님난

선생님난